



위부터

Alessandro Belgiojoso,
 〈Arirang, May Day Stadium
 Pyongyang〉, C-print,
 66x190cm, 2007
 © Alessandro Belgiojoso

Alessandro Belgiojoso,
 〈Room for introducing the
 secret camp n.1, Samjiyon
 Museum〉, C-print,
 67x94cm, 2007
 © Alessandro Belgiojoso

알레산드로 벨지오요조

Alessandro Belgiojoso

Korea, an Impossible Journey

사진 작업 〈Korea, an Impossible Journey〉에 대해 설명해 달라

〈Korea, an Impossible Journey〉는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날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작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남과 북을 넘나들며 사진과 비디오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작업은 2005년 8월 북한을 방문한 뒤 시작되었고, 이듬해에는 북한을 담은 유일한 작가로 대구사진비엔날레에 초청되었다. 이후에도 나는 남과 북을 오가면서 전시와 출판을 병행하고 있다.

나는 어느 경계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문화적 이슈를 리서치하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진가다. 수십년간 이어진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5000년이란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 문화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이 작업은 개인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남북분단을 예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내 작업을 감상한 관객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분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된 나라를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깊은 소망 역시 당신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느 경계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문화적 이슈를 리서치하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진가다. 수십년간 이어진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5000년이란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 문화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이 작업은 개인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남북분단을 예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내 작업을 감상한 관객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분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된 나라를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깊은 소망 역시 당신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레산드로 벨지오요조(이탈리아)는 '경계'를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다. 2006년부터 다른 문화와 지정학적인 의미 사이의 담론을 비교·분석하며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의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2014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다.